

기고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이 최고의 안전

작고 편리함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최근 휴대전화,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 일상 곳곳에서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바로 그 예이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충전과 방전 효율이 뛰어나지만, 충격이나 고온·과충전 상황에서는 내부 단락(합선)이 일어나 급격히 발열하고, 순식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OO지역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 주석 내부까지 번져 큰 재산 피해를 남겼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 수칙으로는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정품 충전기 사용 - 값싼 호환 충전기는 과전류 차단 장치가 부족해 화재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반드시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 충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충전 중 무방비 방치 금지 - 장시간 자리를 비운 채 충전하거나, 취침 중 충전은 매우 위험하다. 코드를 뽑아 과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고온 환경 피하기 - 배터리는 여름철 차량 내부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넷째 충격·변형 배터리 사용 금지 -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충격을 받은 배터리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교체해야 한다.

다섯째 충전 중 가연물 주변 정리 - 주변에 이불·종이·옷가지 등이 있으면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또한 119에 신고 후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사고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점검해야 생활 속 편리함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국민기

행복 그리고 불행.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누구나 행복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물론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하기도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현재의 삶이 뜻대로 되면 행복하다는 것 말이다. 그러나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욕구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주어진 자원을 초과하는 욕구가 있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원이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는 혼합돼 있을 수도 있다. 가령, 건강한 육체로 맹렬히 활동 중인 사람에게 무릎 관절염이 엄습한다면 어떻게 될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국민들의 의식수준 높다는 걸 모르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삶 자체가 고통일 것이다. 본인은 물론 주변들에게까지도 고통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것이다. 결국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들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럴 경우 외톨이가 된 환자의 황폐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라는 두 가지 기제로 이뤄져 있다. 그중에서도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육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육체도 정신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인간의 내·외부를 관할하는 것은 역시 정신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극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비록 관절염 악화로 행동반경이 좁아질지라도 정신적인 힘만 강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인도하사불성'이라 하지 않은가. 실제로 무릎 관절염 악화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그로인한 신체적 활동은 물론 숨가쁘게 움직여야 하는 사회적 활동에도 주어진 약령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아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만약 무릎이 더더욱 망가져 걷기가 어렵게 된다고 할지라도 허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해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척수수상으로

휠체어를 타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약간 더 이동력은 있기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도보가 가능하다는 것만도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더 열심히 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또는 탈 때도,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도 주변의 벽 등을 비롯한 의지할 곳을 찾아 손으로 기댄 채 아픈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거듭된 반복으로 이제는 통증마저도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마음이 환해지니 상황이나 환경까지도 밝아진 것이다. 피어오르는 삶의 활기는 곧 행복으로 이어졌다. 그렇다. 행과 불행은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 현재 아귀다툼을 벌이는 정치인들. 그대들의 파행은 누구를 위해 뭇 때문에 하는 것인가. 혹시 배부른 돼지들의 이유답지 않은 욕구풀이는 아닌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국민들의 수준은 그대들의 뒷모습까지도 훑어볼 정도로 높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감사의 표현을

화재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삶의 터전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화재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즉각 감지해 큰 소리로 경보음을 울려준다.

사람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도 작동해 대피 시간을 확보해 주는 일종의 '조기 경보 장치'다.

연기를 빠르게 인지해 대처 시간을 벌여

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존재는 그 자체로 생명을 지키는 경계병과도 같다. 또한 가정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불이 커지기 전에 곧바로 사용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불길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단 몇 분이 골든타임이 된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바로 소화기 사용이다.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의 안전을 위한 선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안전을 선물하는 것만큼 값지고 의미 있는 명절 선물이 또 있을까?

추석은 나눔과 감사의 명절이다. 올해는 가족의 건강과 안락을 바라는 마음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표현해 보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음력 8월 10일)

48년생 여전히 배고픈 욕심을 가져보자.60년생 까칠한 조건에도 도장을 찍어보자.72년생 불독한 일제 시간을 아껴보자.84년생 경해진 들에서 변화를 가져보자.96년생 천국의 명화를 그려요 그려주세요.

49년생 소소한 행복에 위대함을 알아내자.61년생 급할 이유 없다. 숨고르기 해보자.73년생 꿈으로 했던 목표 열심히 달려보자.85년생 뜻은 가 상하나 결과는 물음표다.97년생 칭찬은 수고도 열심히 해야 한다.

50년생 공역이 아닌 수비 뒷길을 쳐야 한다.62년생 차근차근 거리에서 오고 갈때가 없다.74년생 팍팍했던 살림 다시 여유가 온다.86년생 작은 부분에 위대함을 알아내자.98년생 시국은 신듯해도 결과는 초라하다.

51년생 세상의 속도와 발맞춰야 한다.63년생 서운함은 잠깐 고마움을 가져보자.75년생 느슨해진 긴장을 팽팽히 조여내자.87년생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을 거쳐보자.99년생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52년생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가져보자.64년생 든든한 단짝과 어깨동무 해보자.76년생 풍족하지 못해도 부족함도 없다.88년생 깊은 뜻이 담겨진 선물이 오고간다.00년생 웃자하는 농담 겸수만 껴여진다.

53년생 쉽게 하는 허락 책임을 크게 한다.65년생 양면타리 하고 비싼값을 받아내자.77년생 절하지 않은 꾸준함이 필요하다.89년생 서로에게 반하는 만남을 가져보자.01년생 전폭적인 지지에 날려주세요.

54년생 착한 선함은 이야기로 남겨진다.66년생 울타리 가득 행복 꽃이 피어진다.78년생 헛되지 않은 노력씩 점을 받아낸다.90년생 사랑받으려면 지갑부터 열어보자.02년생 근사한 발상을 실천으로 옮겨주세요.

55년생 민망한 터벽에 고개를 숙여내자.67년생 따뜻한 부탁을 편인히 받아주자.79년생 누군가의 응원이 큰 힘이 되어준다.91년생 묻혀있던 상처를 밖으로 꺼내보자.03년생 실랑이는 있어도 예의를 지켜주세요.

56년생 추억과 낭만주는 소풍에 나서보자.68년생 말로 하는 지랑 초라해 보여진다.80년생 슬픔은 재나고 희망이 다시 온다.92년생 좋다하는 고백 낙서가 되어간다.04년생 생강이 많으면 지면 배는 산으로 간다.

57년생 단단했던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69년생 반기는 손님과 묵은 회포를 풀어보자.81년생 말로 하는 실수 주위 담지 못 한다.93년생 철부지 발상 호통을 내야 한다.05년생 눈물이 먼저 오는 감동에 빠져보자.

58년생 의리와 상관없이 차선을 가져오자.70년생 절충의 기회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82년생 새로운 각오에 밑줄을 그어내자.94년생 계산이 바빠져도 잘보고가야 한다.06년생 미워할수 없으면 품으로 안아주자.

47년생 높고 낮음이 없다. 의리로 뭉쳐보자.59년생 호기롭던 도전물음 표가 그려진다.71년생 치열한 경쟁에서 크게 웃어보자.83년생 세상이 리는 풍파 곳곳이 맞서보자.95년생 뿌리치기 못하는 유혹에 빠져보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e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